



기독교대한감리회

청파교회

교회세운날 1908.5.1

너희도 서로
남의 방을
씻기 주어야 한다.

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
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
청파교회는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

주 일 낮 예 배 순 서

【 대림절 3주 】

(2부 찬양: 286.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) 인도 1부 : 이범석 목사
2부 : 김재홍 목사

- 전 주 반주자
- 임재의 기원 626.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(x3) 다 함께
- 예배로의 부름 김기석 목사
- ▲ 경배의 찬송 28. 복의 근원 강림하사 다 함께
- ▲ 공동기도 다 함께

자비하신 하나님, 날마다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불러 모아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. 주님께서 복의 근원이심을 고백합니다. 주님이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복이요,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. 주님을 예배하며 그릇되었던 우리의 마음이 바름을 회복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십시오.

주님, 어두운 시대를 닦아 마음이 어두워져 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. 한 주 한 주 밝아지는 기다림의 촛불처럼 우리의 마음도 점점 밝아지게 해 주십시오.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아 사랑의 초에 불을 밝혔습니다.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. 세상의 어둠과 무정함을 타하기보다는 그 에 맞서 사랑의 불을 밝히는 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

- ▲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
- ▲ 위로의 말씀 사 9:6,7 인도자
- ▲ 교 독 문 117. 구주 강림(3) 다 함께
- ▲ 영 광 송 2.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
- 2부 대표기도 하현철 장로
- 2부 응 답 송 반주자
- 2부 찬 양 98. 예수님 오소서 다 함께
- ▲ 성경봉독 욥 7:1~8 1부:인도자/2부:최병민 집사

“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”
“하나님, 감사합니다”

봉 독 자
다 합 께

찬 양 I. 너 약해졌으나 마중물 찬양대
 II. 순종 청파 찬양대

말 씀 **읍의 시간** 김기석 목사
 거둬 기도 다 함께

2부 찬 양 425.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다 함께

▲ 봉 헌 317. 내 주 예수 주신 은혜(1·5절) 다 함께

▲ 봉헌기도 김기석 목사

공동체 소식 김기석 목사

▲ 평화의 인사 다 함께

▲ 보냄의 말씀 다 함께

인 도 자 : 교우 여러분,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.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
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. 고난 없는 인생은 없음을 잊지 마십시오.
 고난 속에 있다고 해도 허무와 허탈에 매몰되지는 마십시오. 어떤
 상황에서도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짐을 믿으십시오. 인내
 하고 견디며 끝까지 옳은 길을 가십시오.

다 함 께 : 아멘. 너무 자주 허무감과 허탈감에 빠지는 우리를 붙잡히 여겨 주
 십시오. 고난과 허무가 가득한 세상 속에 참된 의미와 진리의 길을
 내신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. 주님처럼 가야 할 곳을 바로 보고
 인내하며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. 주님,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
 시오. 아멘.

▲ 찬 양 635. 주의 기도 다 함께

▲ 축 복 김기석 목사

다음주

	설교	기도	성경봉독	인도
1부	김기석	공동기도	인도자	이범석
2부	김기석	곽권희	정재기	김재홍



청파교회 페이스북 <https://www.facebook.com/chungpachurch/>



청파교회 주일 오전 11시 예배실황 - 교회 홈페이지 하단에 '예배실황' 클릭



청파교회 카카오톡 채널 : 친구검색창에 '청파교회' 검색 후 채널 추가

※ 현금계좌 : 새마을금고 9002-1751-3375-3 (예금주 : 청파교회)

